성경적 전도운동의 비밀을 알려준 사도행전

-복음으로 여는 사도행전-

스기라 4:6, 사도행전 1:8

정운돈 목사님

* **속4: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할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영육 간에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아픔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고 지금은 사순절기간이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서는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는 로컬사역, 바울은 파라스사역으로 대표된다. 그렇다고 로컬과 파라스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로컬이 기본이 되어 파라스에 파송이 되는 일들을 반복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가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전통 개혁주의에는 사순절이 없다. 우리는 부활 전 40일이 아니라 부활 후 40일을 기념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고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주신 게 부활 후 40일이다. 그런 후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집트를 지켜 유일절을 행하라고 하셨고, 출애굽 한 지 오십일 되는 오순절 날 모세가 홍해를 건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신약에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루살렘교회의 시작이다. 사도행전 1장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는 그저 12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모이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하는데 그냥 모이지 않았다. 문둥병 걸려 고침받은 사람, 세리와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 답을 얻은 사람, 오병이어 당시 도시락을 갖고 왔던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간증했을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달았다고, 기적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치유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120명, 아이까지 5백 명이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인 게 아니다. 그걸 위해 교회를 다닌 게 아니다.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다. 빠지고 이권 따지지 않는다. 어려울 때 피하는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못 한다. 어려울 때에 교회를 지키고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키는, 어려울 때 살리는 멋진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1장 1절은 그리스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성령충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전도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다. 누가는 복음과 전도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잘 정리해 데오빌로 각자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냈다. 복음을 잘 정리해서 엘리트들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말씀이 정리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제자를 붙여주신다.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미션은 세상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은 복음 떠나면 다 지옥같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준다.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간다. 처참하게 만든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결론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빛의 광명의 하나님 나라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한다. 대충 믿으면 안 된다.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 홍해를 가르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모세만 홍해를 가르지 않는다. 집중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걸 체험해 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성령충만,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이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작전이나 방법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충만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사업과 일도 마찬가지다.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성공자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 1장 14절에 보면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분들은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을 위해 올인한 사람들이었다.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 제자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기다리니까’라고 질문했다. 천사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며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를 기다려라. 조금씩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라. 모세는 80년,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기다리게 하셨다. 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15개국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우리가 237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진짜 응답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중심을 가져야 한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계획은 해야 한다. 70나라와 70민족을 두고 기도하라.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실천해야 한다. 말씀을 구경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란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었다.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졌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셔야 한다. 말씀이 역사하고 응답을 받으면 완전히 달라진다. 2장 37절에서 41절에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 배로 응답하셨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응답이 일어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 사도행전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쳐주며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구걸하고 있는 이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라고 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가지고 있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행복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땅끝,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걸 위해 건강해야 하고 운동하고 사업하고 호흡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줄 수 있다. 내가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평안과 확신, 역사, 경계, 치유, 만남이 온다. 그 응답이 있으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염려하라고 하지 않았다. 기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기도를 해야지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으며, 이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확신과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게 성령충만이다. 그걸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사도행전 4장은 복음을 전하다 베드로가 체포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 대해 나온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담대히 말하자 감옥에 넣었다. 베드로에게 감옥은 문제가 아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데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아직도 돈과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었다. 가장 가치있는 일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야 한다. 6장에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곱 명의 중직자를 세웠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는 순교까지 하였다. 8장에서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선교의 문을 열었다.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오직 예수로 결론 난 마가다랴방의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9장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회심하게 해 주셨다. 핍박하는 바울을 꺾으시고 세계복음화하는 복음엘리트로 세우셨다. 꼭 힘들게 내가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전도제자와의 만남을 주시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사람을 붙여줄 만큼의 복음화는 되어야 한다. 그만큼의 믿음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라도 덕적으로 훌륭하라고 하지 않는다. 나 같은 죄인을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게 은혜다.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항상 넘어지는 나인데 그런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또 사도행전 10장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11장은 안디옥교회에 대하여, 12장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부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까지는 사도 바울팀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 대하여, 20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팀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 전도운동 5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이다.

(1) 첫 번째는 다락방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랴방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 제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다락방전도운동의 키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다. 여기에서 찾아낸 다락방 전도란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까지 복음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결론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전도하도록 결론 낼 때까지 알려줘야 한다. 한 사람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말로 전도를 하고 싶다고 고백을 할 때까지 다락방 복음사역을 지속해야 한다. 대상자가 복음에 결론내는 순간 그 다락방은 지교회로 바뀐다. 사도행전에는 '우리'와 '너희'가 나온다. 여러분은 빨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되시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로는 팀사역이다. 팀사역에는 팀사역 전도와 팀사역 포럼이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팀을 형성해 주셨다. 마가다랴방 팀, 베드로 팀, 바울 팀이 그것이다. 혼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전도하면 열매가 없다. 팀형성이 바르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열리게 된다. 캠프할 때도 팀을 보면 그 열매를 안다. 팀사역 포럼이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상담을 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치유받지 못하면 항상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상한 곳으로 간다. 팀사역 포럼을 통해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팀사역을 했던 것이다. 당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범죄자였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자기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데오빌로는 진짜 이름이 아니다. '데오'와 '필레오'의 합성어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마가다랴방에서도 팀 포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팀 포럼을 하였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지, 현상이 얼마나 저주에 있는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줬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길에서나 가

정에서나, 감옥에서도 팀 포럼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복음과 전도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명자로 만들었다.

(3) 미션홈이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전도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도방법은 미션홈 전략이다.

(4) 전문사역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세계복음화는 엘리트들과 전문산업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세계복음화하려면 경제가 많이 필요하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전문인이었다. 데오빌로도 당시 로마의 최고위 정치지도자였다. 사도 바울 또한 최고의 전문인이었고, 성경과 학문에 능통한 복음엘리트였다. 여성 전문산업인이었던 루디아는 전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동안 바울 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담당해주었던 전문산업인이었다.

(5) 지교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팀들은 가는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웠다. 어디를 가든지 사명자를 찾아서 지교회를 세웠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에드워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지금 흑암이 꺾이고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쓰임받고 있다.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나라를 쓰실 것이다.

2. 사도행전은 성경적 전도운동의 방법을 성취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고 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내용이다.

(1)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이다. 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될 때 다락방 복음사역, 제자,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 내용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기도이다.

(3) 세 번째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중요한 내용은 인생의 절대목표를 발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절대목표를 미리 보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를 언급하였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했다. 바울은 자신의 땅끝이 분명했다. 바울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지 못해도 기도해야 한다. 각인, 뿌리, 체질되고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4) 네 번째 비밀은 회당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지금 회당이 학교이고 대학이고 문화센터이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현장이다. 바울은 성령인도따라 기도하며 어디서 어떻게 전도할 지를 알았던 것이다. 나의 황금어장, 나의 회당이 있어야 한다.

(5) 다섯 번째, 성경적인 내용과 비밀은 가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들과의 만남이 성공의 비밀이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청년 제자가 있었다.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했는데 디모데라는 제자를 봤기 때문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의 아손, 18장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이 모든 성경적 전도운동의 내용과 방법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방법과 내용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줄 믿는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알려주시고 훈련 받고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신과 교회와 교단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교단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고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서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